

先祖들의 멋과 숨결 밴 印章문화의精華

「韓國의 印章」 국립민속박물관 편
三和書籍株式會社/A4변형/284면/35,000원

「盤龍軒珍藏印譜」張遇聖 편
弘一文化社/B5/368면/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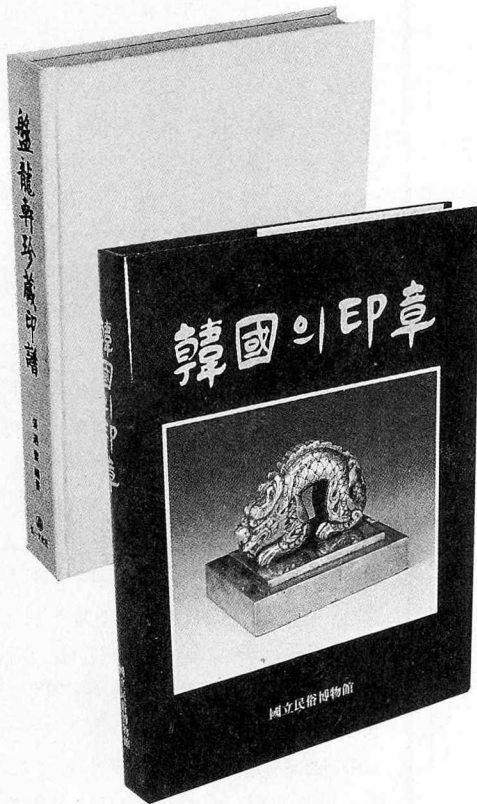
印章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막상 전문적인 연구는 부족했던 우리의 종래 상황에서, 최근 인장에 관한 책 두권이 발간되어 뜻있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한국의 인장 특별전」(7월 7일~8월 10일)에 맞추어 발간해 낸 「韓國의 印章」(三和서적판)과, 원로 동양화가 月田 張遇聖화백(74)이 소장하고 있는 인장 중에서 아끼는 것들을 추려 수록한 「盤龍軒珍藏印譜」(弘一문화사판)가 바로 그것.

新羅에서 近代까지의 印章 망라

국립민속박물관의 印章展에 전시되고 있는 인장은 총733方, 그밖에 印譜및 印屏, 印朱盒, 印刻도구 등도 함께 공개되어 인장문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우선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황금빛의 조선조 국새 「制誥之寶」와 「大元帥寶」가 눈길을 끈다. 그 오른쪽으로는 낙랑시대의 石印·靑銅印·封泥,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의 木印, 그리고 금속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고려시대의 인장들이 전시되어 있다. 조선조로 내려오면 인장의 자체가 금속·나무·돌·자기 등으로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크거나 모양도 더욱 다양해지는데, 이번 전시에는 관청에서 사용되었던 官印과 함께 秋史 金正喜, 茶山 丁若鏞 등 명사들의 私印도 상당수가 전시되고 있다. 한편 조선 憲宗대에 만들어진 「寶蘇堂印存」, 인장 애호가였던 李容洵이 일제시대 때 자신의 소장품을 찍어 만든 「田黃堂印譜」와 같은 유명 印譜들도 공개되어, 인장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엿보게 한다.

『고려 이전의 인장은 대부분 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어 사실 독자적인 우리 민족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오면 한반도 특유의 인장문화가 형성된 듯합니다. 글자체도 자유롭게 변형되는 한편, 공예기술의 발달로 인장에 있어서는 특히 鈕



(인장의 손잡이 부분)가 발달하여 동물의 모습, 구름형태 등 대단히 다양합니다. 조선조 이후에는 역시 중국풍이 강하며, 서화의 발전과 함께 문인들 사이에서 인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민속박물관의 학예연구사 金宗大씨(29)의 말이다.

이번 특별전과 함께 발간해 낸 「韓國의 印章」에는 古印·宮印·官印·名士印·其他印·封緘印 및 手決(인장 대신 자신의 성명·직함 아래에 직접 쓰는 일정 표시)별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인장이 찍힌 흔적 印影은 물론이고 전체의 실물을 칼라사진으로 소개하고 있어, 印章材의 독특한 질감과 각종 조각들도 종합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색. 서문에서 李鐘哲 민속박물관장이 밝히고 있듯이, 인장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세련되고 다양하게 발전되어갔음을 한 눈에 보여준다.

20여년간 印章에 쏟은 精誠의 結晶

한편 月田 張遇聖화백이 펴낸 「盤龍軒珍藏印譜」는 20여년간 모은 개인소장품 7백여 方 중에서 고증이 확실한 3백方 만을 추려 꾸민

인장이야말로 종합예술이다.
그 작은 공간 속에는 선조들의
예술적인 상상력, 기교, 인간미
그리고 해학이 어우러져 있다.
따라서 우리 인장의 전통을 계승,
진정한 예술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아쉽다.

印譜로, 국내에서는 흔치않은 경사. 月田화백은 예술작품에 진정 걸맞는 완벽한 인보를 만들기 위해 편집·원고작성을 손수하는 등 모든 정성을 쏟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단순한 印譜가 아닙니다. 옛 인물들이 사용했던 인장을 손에 쥐게 되면 그분들의 정신·온기가 느껴지고 마치 직접 악수를 하는 듯하지요.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인장의 예술성을 감상하는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인장수집과정에 얽힌 이야기거리도 많다 한다.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팽개쳐져 있거나 고물상 먼지 속에 뒹굴고 있던 문화계급 인장들을 발견해 내기도 했고, 그런가하면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던 인장을 진정한 소장가에게 맡기고자 직접 月田화백에게 들고 온 경우도 있었다고.

어느 것 하나 특별한 애정이 안가는 것이 없지만, 月田화백은 그 중에서도 이제까지 하나 밖에 발견되지 않은 李忠武公의 인장, 중국의 세계적인 篆刻家 吳昌碩이 각인한 閔泳翊의 인장, 그리고 을사조약으로 자결했던 閔泳煥의 인장에 각별한 애정을 나타낸다. 그밖에 印譜를 한장 한장 펼쳐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큰 자취를 남겼던 여러 인물들이 아끼고 소중히 했던 인장들을 만날 수 있어 마치 또다른 역사책을 들춰보는 듯하다.

『인장이야말로 종합예술입니다. 字法, 章法, 刀法이 제대로 어우러질 때 인장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따라서 그 작은 공간 속에는 예술적인 상상력, 기교, 인간미, 그리고 해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라고 月田화백은 말한다.

月田화백의 화실(盤龍軒) 이름을 따붙인 이 인보를 펼치면 우선 한 폭의 동양화를 대했을 때와 같은 시원시원한 공간미를 느낄 수 있다. 동양화는 서양화와 달리 공간이 생명이며 인장 역시 마찬가지라, 단순히 인장을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것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책 자체에서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것. 세심한 부분에까지 정성을 아끼지않은 편자의 마음씀이 印譜 곳곳에 나타난다.

月田화백은 1천부 한정본으로 펴낸 이 印譜를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대만·일본을 비롯한 구미지역 각 도서관에 기증하여 우리의 인장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가을 쯤에 국립박물관에서 인장전을 가질 계획이며, 훗날 소장품들은 박물관에 기증할 생각이라고.

藝術化에 좀더 關心 기울여야

인장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믿음의 상징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서에 인장이 찍혀야 출생이 인정되며, 사망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한 개인의 분신으로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인장이, 뛰어난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吉印이니 凶印이니 하는 근거없는 신문광고에 현혹되어 막대한 금액을 허비하거나 할까.

인장의 예술화에 뜻있는 이들은 인장에 대한 애국된 관심과 상업화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이나 일본의 인장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의 인장연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젊은 세대에서는 이미 인장이 사라져가는 경향이고, 새기는 사람들도 예술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상업적 이익에만 급급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루 속히 우리 인장의 전통을 연구·정립하여 진정한 예술의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지요』 篆刻學연구회 鄭文卿회장(66)은 이렇게 강조한다.

생활속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는 인장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고, 옛 인장에 담긴 역사와 아름다움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 두 책의 간행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오애리 기자